

시민들과의 교류

한국어 중급강좌



2019년 11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가고시마 시민복지플라자에서 한국어 중급강좌 한국어오사베리(おしゃべり-수다)클럽이 있었다.

이번에는 중급강좌는 한글읽기와 한국어 일상회화가 조금이라도 가능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강좌를 앞두고 강사는 한국어 학습자가 평소 한국어로 말 할 기회가 적다고 판단하여, 이번 중급강좌에서는 간단한 한국어 문법 설명과 비롯한 한국문화 소개 등을 '한국어'로만 해보기로 했다. 걱정도 되었지만, 강의가 끝난 뒤에는 수강생들로부터는 '일상적인 한국어 표현을 많이 알게 되었고 전부 이해 할 수 없어도 한국어를 듣는 것 많으므로 실력이 향상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다수 들었다. 강좌평가는 매우 좋은 편이었다.

또한, 이번 한국어 중급강좌에서는 강사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께 질문'이라는 주제로 수강생들에게 가능한 한 한국어로 대답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내용으로는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와 배우' 등 매회 다른 질문을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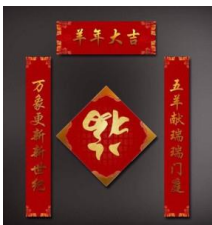
이번에는 10명정도의 적은 인원이 참가하였다. 수강자 한명 한명과 마주보며 이야기가 가능했고, 질의응답도 더 성의있게 할 수 있어서 수강생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2017년부터 3년간 한국어 강좌를 해왔지만 2019년 겨울의 이번 강좌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한국어 강좌를 준비하는 과정은 힘든 면도 많았지만, 이번 강좌는 '오늘은 수강생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라며 기대되어 강좌날이 기다려졌다.

2020년도에도 한국어 강좌는 계속된다. 지금까지 한국어 강좌에 참가해 주신 많은 분들, 새롭게 만나게 될 분들과 이야기 할 시간이 매우 기다려진다. 2020년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한국어 강좌를 계획하고 싶다.

문화교류이벤트 정보 <가고시마시 국제교류재단>

-관련정보: <http://www.kiex.jp/category/cat-event/>

중국문화체험강좌 ~춘련 만들기~



지난 2019년 12월 1일(일) 가고시마현민 교류센터에서 중국출신의 가고시마시 국제교류원 키코민씨에 의한 '중국문화 체험강좌'가 있었다. 이번 중국문화 체험강좌에서는 중국의 설날에 행해지는 '춘련 만들기' 체험이다. 춘련(春聯)이란, 중국 전통문화의 하나로 중국의 설날인 춘절(春節)에 운기가 좋은 문구 등을 빨간색 종이에 써서 집 현관이나 입구에 붙여놓는 것을 말한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약 20여명의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여 즐거운 체험시간을 가졌다.

문화교류이벤트 정보 <가고시마시 국제교류재단>

-관련정보: <http://www.kiex.jp/category/cat-event/>

오스트레일리아 문화 · 어학강좌



2020년 1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가고시마시 국제교류원에 의한 오스트레일리아 문화 · 어학강좌가 열린다. 강사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네이잔씨가 담당한다. 이번 오스트레일리아 문화 · 어학강좌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문화 및 사회에 대해서 소개하며 영어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번 강좌에서는 '영어'로만 진행하며, 하나의 테마를 정하여 그것에 대해서 수강자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의 레벨의 중급강좌를 열 예정이다.

문화교류이벤트 정보 <가고시마시 국제교류재단>

-관련정보: <http://www.kiex.jp/category/cat-event/>

가고시마시 소식

야마가타현 쓰루오카시(鶴岡市) 친선방문단



가고시마시와 야마가타현 쓰루오카시 형제도시 체결 5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작년 11월 6일(수)부터 8일(금)까지 2일에 걸쳐 가고시마시에서 쓰루오카시 친선방문단과의 교류가 있었다. 이번 쓰루오카시 친선방문단은 쓰루오카시장을 비롯하여 총 21명이 참가하였다.

야마가타현 쓰루오카시는 일본 동북(東北)지방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도 조카마치(城下町:일본 전국시대 이후에 영주의 거점인 성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도시로 행정도시 및 상업 도시의 중심지였다.) 문화가 남아있어, 옛 영주의 가문이 계속해서 그 지역이 살고 있다. 또한, 가고시마시와 같이 일본근대문화를 배경으로 발전한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곳이다.

가고시마시와 쓰루오카시는 1868년 보신전쟁에 패한 쇼나이번(庄内藩-현재의 야마가타현)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한 사이고 다카모리의 성품에 매료당한 쇼나이번의 사람들과 '덕의 교류(徳の交わり)'로 부터 교류활동이 시작된 것을 계기로 1969년 형제도시를 체결하였으며, 지금까지도 교류가 계속되고 있다. 1971년도 부터는 양 도시간의 중학생들의 교류도 시작되어 가고시마시 사이고 다카모리와 쇼나이번의 사람들과의 친교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쓰루오카시의 선전을 위해 가고시마 시가지를 달리는 시 노면전차 '쓰루오카 호'도 있다. 7일(목)에는 두 도시의 형제도시 체결 50주년 기념식전이 있어 약 1000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두 도시의 우호교류를 계속 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고시마현 재류외국인 증가



가고시마현내의 재류외국인수는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하여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1만 547명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도 10월 일본법무성재류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 가고시마현의 재류외국인수의 증가

률은 일본 전국최고를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률은 일순부족으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력 '기능실습생'을 받아들이는 움직임

긴코만 소식

이 급속도로 이루어진 것을 주 요인으로 본다. 가고시마현의 재류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기능실습생의 경우 국적별로는 베트남·중국·필리핀순으로 많다. 이러한 거주외국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고시마현은 취업·의료·복지 등에 관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외국인 종합상담창구'를 2019년 10월부터 가고시마현민 교류센터내에 개설하고 있다. 또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총 19개의 언어대응이 가능하다.

제25회 외국인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



2020년 1월 25일 에 가고시마 현민교류 센터에서 '제25회 외국인 대상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가 개최됐다. 이번 스피치 콘테스트는 가고시마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일본어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의 일본어 능력 향상을 위함과 동시에 국적 및 문화차이를 넘어 다문화 공생사회를 만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표내용

은 자유주제(단, 종교 및 정치에 관한 내용은 삼가)이며 스피치 시간은 4분에서 6분이내이다.

가고시마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이전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적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만엔과 부상이 수여된다. 지난 제24회 대회에서는 12개국과 지역에서 38명이 예선에 참가했고, 예선을 통과한 7개국 10명이 본선에 참가했다.

개최 일시 : (예선) 2020년 1월 11일(토) 오전 10시~

(본선) 2020년 1월 25일(토) 오후 1시30분~

- 관련 정보 : <https://www.kiaweb.or.jp/2019/12/post-135.html>

사쿠라지마 화산폭발시의 '재해시 다언어지원훈련' 실시



지난 1월 11일 (토) 사쿠라지마화산폭발 종합방재훈련 '재해시 다언어지원훈련'을 실시했다.

우선, 오전에는 가고시마시청 별관 '재해대책본부실'에 가고시마시

국제교류재단 직원, 가고시마시 국제교류어드바이저(한·중·영)와 통역 봉사자 등이 모여 '다언어 정보발신훈련'이 이루어졌다. 훈련 내용으로는 '사쿠라지마의 분화 경계 레벨 4, 5가 발표되었을 경우 시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를 통역봉사자가 각 언어로 번역

한 후, 실제 상황에서 가고시마시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이 읽고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교류원의 확인작업도 이루어졌다.



오후에는 가고시마시내의 텐포잔 중학교로 이동하여 실제 피난소로 이용되고 있는 교내의 체육관으로 이동하였다. CIR(국제교류원)과 ATL(외국어지도교수)가 참가하여 '외국인피난자' 역할을 맡고, 통역 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피난소에서 접수하는 법과 각종 재해시 외국인 대응에 관한 훈련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피난시에 제공되는 '피난식'을 먹어보는 기회도 있었다. 피난식은 카레, 야키소바 등 일본 사람들이 주로 즐겨먹는 음식이 제공되었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먹기 좋도록 부드러운 소재의 재료를 써서 만들어져 있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방재훈련을 끝내고 마지막에는 참가자들이 모여 의견 교환시간을 가졌다. 이날, 다수의 의견들을 듣고 느낀점은 피난소 접수대의 직원들 및 관계자들의 외국인 대응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이다. 이유로는 경험부족과 외국인에 대해 낯선 감정이 많은 것을 꼽았다. 이번 방재훈련을 통해서 외국인에 대한 인식과 실제 재난시의 외국인 대응법에 대하여 개선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관광관련 소식

서울과 부산, 가고시마간 전세기 운항



최근 한일관계의 악화속에서 한국 항공사들의 일본노선의 축소, 폐지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저가항공회사 에어부산에서 서울과 부산, 가고시마를 연결하는 전세기를 운항한다. 서울-가고시마간 노선은 2020년 1월 5일부터 3월 1일까지. 화,금, 일 주 3편 이며, 부산-가고시마간 노선은 2020년 1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인 목,일 주 2편이다.